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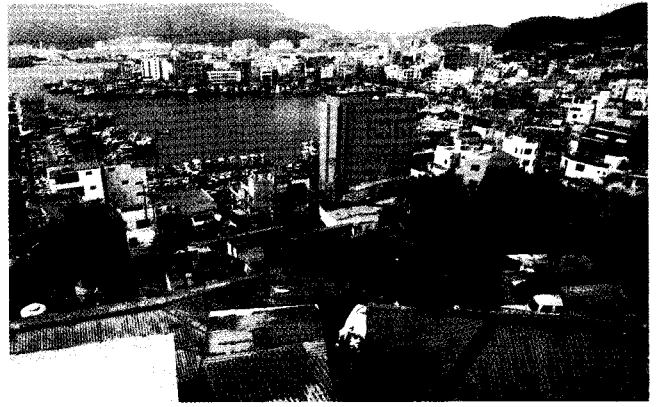


여름보다 뜨거운 경남 통영 바닷가 유치환 생가부터 충무교까지 바닷길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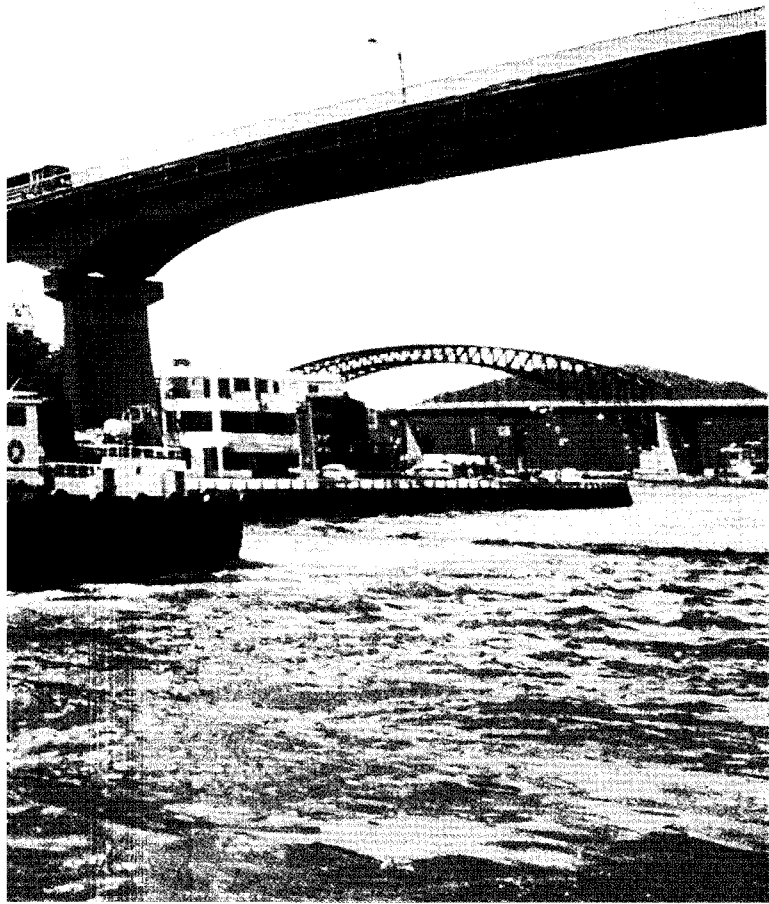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통영에 있다. 거친 바다의 하루를 담아 온 고깃배들이 어깨를 맞대고 쉬고 있는 강구안 바다. 그 바닷가에는 쪽배를 띄우고 파도와 함께 일렁이는 여름 한낮 땀별 같은 바다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삶이 영기고 풀리는 또 다른 바다, 항구 앞 난전도 있다. 통영의 바다는 여름보다 뜨거웠다.

✎ 사진 장태동(여행칼럼니스트)





01 충무교 아래 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던 곳.
 02 청마 유치환 생가
 03 동피랑길에서 통영의 아름다운 항구 강구안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청마 유치환 생가에 가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초가가 한 채 자리 잡았다. 통영시 정량동 산기슭에 있는 시인 청마 유치환의 생가다. 원래 청마는 지금은 변화가가 된 태평동에서 태어났으나 지난 2000년 정량동에 문학관을 만들면서 생가를 이곳에 복원했다. 비록 복원한 생가가 그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초가 사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시 '깃발'에 나오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파란 하늘과 흰구름 몇 점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와 머리를 형클어뜨리는 바람에 옛 시인의 향수가 묻어나는 듯하다.

바다를 품고 꿈을 꾸는 마을 '동피랑'

계단을 내려와 강구안으로 발길을 옮긴다. 오래 걸리지 않아 강구안 바다를 만났다. 우리는 항구 앞 산마을 언덕길로 올라갔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초입 축대에 '동피랑에 꿈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마을 이름은 동호동이지만 '동피랑길'이라는 골목 이름이 더 살갑게 느껴진다. 마을 전체가 그림이다. 어쩌면 하늘마저 배경이자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집과 담, 벽, 골목바닥에도 온통 그림이다.

동피랑길은 좁은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미로다. 산언덕 마을의 남루한 생활 속으로 파고든 그림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에 밝은 웃음을 피어나게 만들었다. 마을이 언덕에 있으니 어딘가는 분명 꼭대기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꼭대기로 오르는 골목길도 여러 갈래였고 우리는 그 길을 다 보지 않고서는 이 마을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더 높고 더 좁은 골목으로 올라갈수록 집들은 더 허름해졌다. 쇠창살과 가시철망 너머 보이는 마당에는 낡은 장독대와 '몽당 빗자루'와 운동화 몇 켤레가 고작이었다. 시커먼 녹이 덕지덕지 얹은 담장 위 쇠창살, 가시철망을 뚫던 담장에도 그림을 그렸다. 그림과 하나 된 그것들은 작은 꽃나무거나 담쟁이 넝쿨인 듯 보였다. 더 높은 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을 때 눈앞에 커다란 붉은 꽃 한 송이가 나타났다. 바로 위가 언덕 꼭대기다. 그곳에는 몇 채의 집이 있었다. 어떤 집 옥상에서 빨래가 바람에 날라가고 있었다. 그 모양이 만선의 깃발 같다가도, 동피랑을 찾은 여행자에게 마을이 보내는 갈채 같

다가도, 알루미늄 미닫이문을 닫으며 돌아서는 할머니의 한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웬히 여기까지 온 것일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으니 우리의 희망을 이곳에서 찾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의 마침표를 찍는다.

가장 아름다운 항구 '강구안'

'강구안'에 여관을 잡았다. 통영을 가장 통영답게 만드는 게 '강구안'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짐을 풀고 바닷가를 어슬렁거렸다. '강구안'은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 작은 만인데 그 이름 끝 '안' 자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이 언덕은 바닷가 길 바로 옆에 있다. 언덕에는 집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다. 집마다 바다로 열린 창문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시다.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 창마다 불을 밝히겠지. 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밤 언덕은 축제처럼 빛나겠지. 매일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문다.

'철썩'대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항구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오른쪽에 김밥집이 보인다. 길 한쪽이 모두 '충무김밥' 집이다. 충무김밥은 손바닥만 정도 크기의 김에 밥 한술 떠서 말아 나오는데, 김밥 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한 입에 '썩' 들어갈 정도다. 무김치와 쭈꾸미무침이 곁들여 나온다. 쭈꾸미가 귀할 때는 오징어무침이 나오기도 한다. 이

것이 충무김밥 원산지인 통영식이다.

강구안을 벗어나 서호시장 앞 바닷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여객선터미널을 지나면 바다 옆 도로를 따라 걸을 수 있다. 수협공판장을 지나 바닷가 길을 따라가면 통영과 미륵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나온다. 이 부근 바다가 '손돌목'이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의 연전연승의 기세에 눌린 일본군의 도주로였다. 원래 이곳은 바닷길이 없었는데, 일본군이 도주를 위해 지협을 파고 뱃길을 만들었다.

손돌목 바다가 보이는 육지쪽 언덕에 '착량묘'가 있다. 착량묘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다. 통영에는 충무공을 기리는 사당이 두 곳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이곳에 있는 착량묘이고, 다른 한 곳은 중앙동에 있는 충렬사다. 충렬사는 왕명으로 세워졌고 착량묘는 일반 백성들의 뜻으로 세워졌다. 착량묘 앞 계단에 앉으면 손돌목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그들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바다와 언덕 위 집들이 어우러진 강구안이 동화마을이라면, 충무교 아래로 흐르는 손돌목 바다는 바닷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육지와 섬 사이 바다가 좁아 유속이 빠르고 물결이 세다. 초록 바다가 흰 거품을 내뿜는다. 점액질의 바다가 통째로 일렁이며 작은 배를 흔들어 놓는다. 사람들은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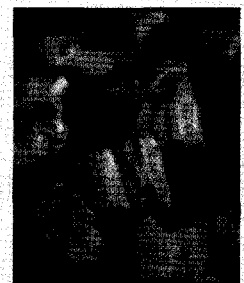


통영의 특산물 먹을거리

통영은 특산물 먹을거리가 많다. 그 역사가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는 충무김밥은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하다. 충무김밥을 먹은 뒤 강구안바지를 구경하며 충무교까지 걸어가 그 부근 장어집에서 장어인주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만찬을 즐긴다. 다음날 아침은 중앙시장 한산집에서 파는 졸복해장국으로 속을 풀면서 산뜻한 아침을 맞이한다.

장어구이 - 충무교 아래에는 장어구이집이 많다. 양념을 하지 않고 구워 소스를 찍어 먹는 식이다. 담백하고 구수한데 기름기가 많아 생각보다 많이 먹지 못한다. 장어는 강장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비타민A와 단백질, 지방 등이 많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피부미용, 노화방지 등의 효과도 있다고 전해진다.

졸복해장국 - 중앙시장 한산집이 유명하다. 작은 북어를 넣고 끓인 맑은 해장국이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지은 자산어보에 '소돈'이라고 나오며 '오며 속명을 졸복'이라고 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다. 나트륨, 아연, 엽산, 철분, 칼륨, 칼슘 등도 많다.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지방과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도와 숙취해소 등에 좋다고 알려졌다. 또 혈액순환과 노화방지 등의 효과도 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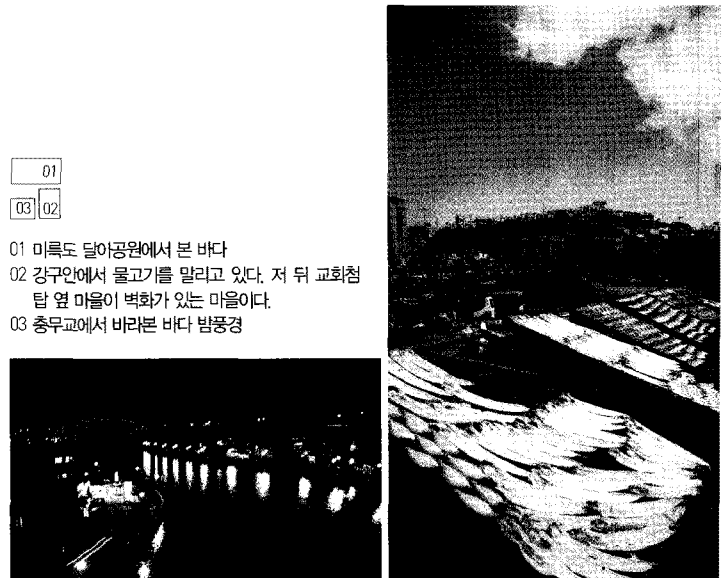
충무김밥 - 강구안 바닷길 한쪽에 충무김밥집이 줄지어 있다. 충무김밥 거리 한 할머니에 따르면 충무김밥 유래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부터 60여년 전 어두리 할머니(1994년 작)가 반찬을 넣어 김밥을 말았다. 지금처럼 김밥 따로 반찬 따로 만들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던 시대가 끝난 건 지금부터 20~30년 전이다. 지금 같은 식당건물은 아니지만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식당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한 입 크기로 만들어진 김밥과 무김치(현지사람들은 '숯박'이라고 부른다), 쭈꾸미무침이 한 접시에 담겨 나왔다(쭈꾸미가 귀할 땐 오징어를 쓰기도 한다). 김밥은 간이 안됐다. 그냥 김으로 밥을 싸서 말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충무김밥은 김과 밥 그리고 곁들여 나오는 반찬의 맛이 잘 어울려야 맛이 제대로 시는 것이다.

일 그 바다물결을 가르며 일터로 나가고 돌아온다.

육지와 가까운 얇은 바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웅크리고 앉아 무엇인가를 따 올린다. 7월의 이글거리는 태양도, 수직으로 하늘 높이 솟아 오른 구름도, 일렁이는 파도도 그들의 일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름보다 뜨거운 바다의 삶이 있어 통영의 그 바다는 더 아름다웠다. 그런 풍경들을 마음에 담으며 걸다보니 벌써 충무교다. 다리 그늘 아래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리 위로 올라갔다. 바다와 사람들 그리고 도로가 어우러진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충무교 위다. 다리 위에서 보는 아래 풍경은 녹록하지 않은 삶과 거친 바다가 어우러져 있다.

착량묘가 있는 당동은 돌담길 골목이 볼만하다. 어린 시절 헤지는 것도 모르고 뛰어놀던 골목길의 정서가 남아 있다.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걷는다. 뜰 안 나무 진녹색 잎이 무성하다. 왔던 길을 되걸어 강구안으로 돌아갔다. 강구안 바다에서 도로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통영우체국이 있다.

우체국 문 옆에 비석 같은 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곳이 '청마거리'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또 이곳 우체국은 청마가 사랑하는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던 곳이라고 한다. 그 옛날 어느 여름 날 청마 또한 나처럼 이 바다를 걸었고 우체국 앞에 멈추어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글 하나 띄웠으리라. 나는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가 펜을 꺼냈다. 6



01 미륵도 달아공원에서 본 바다
02 강구안에서 물고기를 말리고 있다. 저 뒤 교회침탑 옆 마을이 벽화가 있는 마을이다.
03 충무교에서 바라본 바다 밤풍경

통영 가는길

① 자가용 대전-통영 고속도로 통영C-시민문화회관 이정표를 따라 이동-시민문화회관 바로 전에 강구안항구가 있다.

② 대중교통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에서 통영까지 가는 버스를 탄다. 통영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강구안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강구안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내려달라고 하면 된다.

③ 숙박 시내와 강구안 쪽에는 여관이나 모텔 등이 있고 강구안에서 약 5km 거리에 있는 도남관광지에 마리나리조트가 있다. 민박은 미륵도 일주도로 및 한산도 소매 물도 등 통영 관내 유명 섬에 많다.

통영에서 가볼만한 곳

미륵도관광특구 - 충무교를 건너 미륵도로 들어가면 자동차로 섬을 일주할 수 있다. 달아공원 낙조가 유명하고, 작은 항구마을들도 이쁘다.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 도남관광지 부근에서 미륵산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다. 한려수도의 뛰어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 안내전화(055-649-3804)

남량산국제조각공원 - 강구안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보는 바다 풍경이 멋있다. 곳곳에 조각품 등이 있어 감상할 만하다. 특히 이곳에서 보이는 강구안 전경이 관상다.

유치환 생가부터 강구안을 지나 충무교까지 - 유치환 생가부터 충무교까지 약 4km 정도 되는데 그 바닷길을 걸어볼만 하다. 강구안, 동피랑마을, 중앙시장, 서호시장, 착량묘, 해저터널 등 곳곳에 볼거리가 많다. 특히 강구안은 바다와 항구, 늘어선 배, 언덕에 촘촘히 박혀 있는 집들이 어우러져 볼거리를 만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다.

총렬사와 착량묘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다. 총렬사는 왕의 명으로 지어졌으며 착량묘는 백성들의 뜻으로 지었다.

세병관 -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세병관은 경복궁 경희루, 여수 진남관과 더불어 단층 목재 건물 중 가장 크고 웅장하며 기품 있는 건물이다.